

◇ 서 평

홍순원, 「조선보건사」(청년세대, 1990)

許 程

서울대 보건대학원

흔히 醫學史나 保健史를 두가지 접근방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內史的인 접근방법과 外史的인 접근방법이 그것이다. 醫療技術이나 保健思想의 역사적 변천에만 관심을 둘 때 흔히 이를 내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좀더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켜 醫療知識이나 保健事業에 관련된 배경이 될 수 있는 社會·文化的 要因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政治·文化·社會·經濟 等 다방면에 걸쳐 상호관계를 이해하려는 입장이 外史的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다.

확실히 保健史나 醫學史는 그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醫療技術이나 保健事業의 변천만을 다루는 이른바 科學技術史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보건의료상의 문제나 사업들이 사회·경제·문화 등 제요인의 역사적 변천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保健制度史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책들이 근래 많이 나오고 있다. 西洋의 醫療保險에 관련된 연구를 보아도 1893년에 최초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프로이센에 도입된 國民皆醫療保險制度를 당시의 政治情勢와 연관시켜 당대의 높아만 갔던 노동자들의 福祉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종의 政治的 妥協으로 생겨났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료기술이나 保健事業의 변천은 정치적인 영향만으로 이룩된 것은 아니었다. 衛生改革運動이나 社會衛生運動은 初期 保健事業에 헌신적으로 관여했던 유럽의 많은 保健運動家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

고집센 獨逸의 實驗衛生學者 페텐코퍼(Pettenkofer)에 의해 細菌說이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뮌헨市에는 콜레라나 腸티프스 같은 무서운 水因性 傳染病을 막을 수 있는 上水濾過法에 의한 안전한 給水施設이 도입되었고 그로트얀(Grotjahn) 같은 선각적인 獨逸의 社會衛生學者는 물론 英國의 功利主義의 改革運動家였던 채드윅(Chadwick)에 의해 産業革命 이후 악화일로로 걸었던 노동자들의 복지 내지 保健事業이 확충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19世紀 末까지 유럽 保健史에서 가장 관심을 끈 문제점은 傳染病 問題였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흉년이 들면 전염병이 돌고 영양실조가 겹쳐서 政治的 不安까지 야기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전쟁이 나면 농사가 안되고 饑饉과 함께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곤 했다. 역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의 유행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생해 왔다. 서기 5世紀에 있었던 西 로마帝國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이룬 것은 북쪽의 野蠻族 침입과 함께 유스티니아누스皇帝 때 무섭게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전염병의 유행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도 疾病史家들은 이것을 “유스티니아누스皇帝時의 大疫疾”이라고 부른다. 그 후 千年쯤 지나서 14世紀에 이르러 유럽에는 또 다시 무서운 黑死病이 나돌아 르네상스의 시작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航海術의 발달과 좁은 地中海를 중심으로 한 西歐文明이 점

차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殖民地를 얻으려는 치열한 帝國主義의 競爭에 휘말리자 여러 지역간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늘어나고 이에 수반해서 전염병의 交流時代에 접어들게 되었다.

舊世界라 불리웠던 西유럽 世界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熱帶病이라 볼 수 있었던 콜레라를 위시해서 黃熱病과 아메리카 原住民으로부터 시발되었다고 “콜롬부스說”에 의해 제창된 바와 같이 梅毒이 퍼져서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또한 말라리아도 보편화되어 구라파에선 熱帶醫學 내지 熱帶保健이란 새로운 영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1450년경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征服史에서도 전염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1552년경부터 시작된 에르난도 코르테스가 이끌었던 스페인遠征軍은 그 수가 6百名이 되지 않았지만 千萬名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던 아즈텍帝國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피자로 또한 잉카帝國을 멸망시켰다. 원정군의 수자나 그들이 갖추었던 兵器로 미루어 볼 때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않았지만 舊世界가 이른바 新世界라 불리웠던 아메리카 大陸을 정복하는 데 天然痘가 결정적 역할을 해줬다.

聖堂을 찾는 原住民들이 고름물은 모포를 타고가고 나면 數萬 내지 數十萬名씩 천연두에 걸려 아메리카 原住民들은 폐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겐 천연두는 전혀 새로운 전염병이었다. 그들에겐 아무런 免疫力이나 저항력도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舊世界 사람들에게 천연두는 결코 낯선 병이 아니었다. 흔한 전염병이어서 대개 어릴 때 걸리는 小兒傳染病이었다. 면역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천연두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아메리카大陸의 征服史에 나타나는 천연두의 역할은 새로운 전염병이 새로운 宿主인 人間集團에 발병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一次大戰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으레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 生疎한 전염병이 돌아서 언제나 戰死者보다 5-10배이상 病死者가 생겨났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傳染病은 政治史의 주요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戰爭史나 政治史에서 질병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된 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政治的 變革이나 地理的 發見이 전염병의 대유행을 가져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4世紀에 돌았던 유럽의 黑死病은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에 의한 유라시아大陸의 정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고 19世紀 이후 都市 貧民들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結核과 콜레라 그리고 腸티푸스가 나돈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로젠 教授가 쓴 「保健史」 같은 것은 비교적 內史的인 접근법을 따랐다고 한다면 1970年代에 출간되어 크게 반응을 불러일으킨 맥닐의 「疾病과 民衆」은 질병 내지 保健問題를 政治史 내지 社會史와 관련시켜 서술한 책으로 外史的 接近法에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醫學史나 保健史를 단순한 科學技術史의 좁은 테두리에서 다루어온 연구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비록 唯物史觀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보건문제나 제도적인 변천과정을 보기는 했지만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술했다는 점에서 홍순원씨가 쓴 「조선보건사」는 새로운 시도에 입각한 흥미있는 著書라 하겠다.

金斗鍾박사가 쓴 역사적인 「韓國醫學史」는 방대하고도 浩瀚한 여러 자료를 集大成했다는 뜻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金斗鍾박사가 직접 「한국의학사」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後學의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점을 밝힌다면 醫人傳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內史的인 접근에 시종했고 朝鮮朝 이후 의학발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홍순원씨가 쓴 「조선보건의사」에는 과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다루지 못했던 朝鮮 後期와 日帝時代 그리고 해방이후의 변천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록 唯物史觀에 입각해서 서술된 내용이지만 장차 우리나라 보건의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역지로 特定人의 抗日鬭爭을 중심으로 연대를 나누어 설명한 여러 내용은 그렇게 피부에 닿는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쓴 홍순원씨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조선보건의사」를 보면 唯物史觀과 主體思想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조선조까지의 발전과정을 요약하고 항일투쟁기와 해방이후에 중점을 두고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이 책에서도 조선조까지의 서술에서는 日本人으로서 韓國醫學史 研究에 크게 공헌을 하고 再昨年에 작고한 三木榮의 「朝鮮醫學史」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醫學史 내지 保健史 研究는 더욱 추진되어야겠다. 특히 보건문제나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의 단순한 발전이란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치·사회적으로도 상호관계가 깊다는 점을 유념해 볼 때 外史의 近接도 시도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싫든 좋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醫療技術이나 보건사업은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19世紀 이후 西洋의 文物을 통해 도입되어 보편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의료 및 保健關係 技術의 도입을 흔히 세가지 徑路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茶山先生 같은 實學者들에 의한 中國을 통한 서양의 保健醫療關係 新知識의 도입이 그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19世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西洋 宣教師를 中心으로 한 西洋醫學 내지 保健關係學問의 도입을 두번째로 꼽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韓日合邦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支配力을 행사하게 된 日本에 의한 근대적인 保健醫療技術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후 日帝 36年을 거쳐 우리는 南北으로 분단되어 각기 다른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유럽의 保健醫療技術을 많이 도입하여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舊韓末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약 100年 남짓한 보건의료기술의 도입 내지 土着化와 이에 수반되는 保健醫學事業의 발달과정을 깊이있게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 특히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體制가 다르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思想體系가 같지 않아서 이 조선보건의사를 그대로 우리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韓國保健史란 종합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해 놓고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著述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책이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날이 빨리와야겠다. 물론 이 「조선보건의사」를 읽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장차 保健史나 醫學史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문제점 내지 制約이 있지만 舊韓末로부터 해방이후에 이르는 保健史 研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믿는다. 특히 南北交流가 보다 活性化되고 保健史나 醫學史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장차 共同研究를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면 보다 더 훌륭한 大作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의학사나 보건의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醫學史나 保健史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겠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의학사나 보건의사도 하루 빨리 나오게 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이미 北韓에서는 國策의인 사업으로 이런 보건의사 같은 서적이 나왔다는데 한편 부러운 心情에 빠지며, 또 한편으로는 筆者와 같은 사람들의 게으름에 채찍질을 가하는 動機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임을 밝히고 싶다.